

## 하계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 문 섭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여**러 수종의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균락을 이룬 금원산 숲속에서 2008년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하계연찬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우천관계로 학교강당으로 옮기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사를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 함께 자리하여주신 하영제 산림청장님, 신성범 국회의원님, 서동면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님, 조운명 경상남도부지사님, 양동인 거창군수님, 오기표 서부지방산림청장님, 김종철 한국임업신문 사장님, 양동만 임업후계자 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강연을 해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조연환 전 산림청장님, 김기운 백제약품 회장님, 김의경 경상대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정부와 산주는 50년의 긴 세월을 말없이 나무를 심고 가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나무를 잘 가꾼 성공한 나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2백만 산주를 대표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원님들이 더 큰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계연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계연찬회에 참석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산과 나무의 기를 가득히 받아가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목재의 자급자족, 산소 배출권, 국토보존의 의무, 지구온난화 문제, 도교의정서 문제, 국민의 휴식처 제공 등 모든 현안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독립가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 개인의 이익에 치중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날이 갈수록 국가적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임업인이 대신하고 있다고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 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꾸어 산에도 산주가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댓가 없이 연중 60조원에 이르는 공익적 이익을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상차원에서 직불제로 산주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신설하여 주실 것을 독립가회원 일동이 간곡히 건의 합니다.

특히 산림청장님께 부탁은 산을 가지고 나무를 가꾸는 2백만 산주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산림을 경영하여 임업소득이 있는 임업 정책을 세워 국가와 산주가 한마음으로 임업 부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찬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 산림청장님, 산림조합중앙회장님, 경상남도지사님, 거창군수님께 우리 협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께 다시 감사드리며 산과 나무의 기를 가득히 받아가서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山林**

2008년 7월 2일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장 하 문 섭